

만남

11

2019
통권 550호

특 집 | 감사의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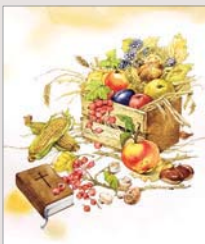


2019 간증주일

간증주일이었던 지난 9월 29일 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마당에서 '2019 간증주일' 행사가 열렸다. 1부 예배 직후인 이른 아침부터 영락의 뜰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교구별 부스를 찾아가 간증주일 출석표를 제출하고 교구 목사를 만나 가족의 신앙 상황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각 교구 부스마다 구역장을 비롯한 봉사자와 구역 식구들이 다과와 대화를 나누며 잔치 분위기 속에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이어졌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표지설명



수확과 감사의 계절인 가을이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린다.

일러스트 김명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만남

C O N T E N T S

이달의 말씀

낙엽이 되더라도 감사를! | 김운성 02

특집 감사의 신앙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 김형찬 04

수능 긴장되시죠? | 정기남 06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영락 전도챗봇들의 '꿀팁' | 박선이·이현지 09

다음세대

8살 막내도 주일아침 청소 봉사 | 이현지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 김혜인 18

자녀들이 주저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 김숙영 20

땅끝까지 이르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 김주신 22

평양1866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 이성원 25

야곱의 우물가

전도사역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 김홍선 28

일상에서 느끼는 전도의 희열 | 이화숙 30

영락의 울타리

우리나라 직장인예배의 효시 | 이의용 32

영락교회와 나 | 조호제 36

순종의 길 걷고 있습니다 | 안영순 38

인생의 세 가지 꽃 | 김영숙 40

봉사와 섬김

환절기 질병과 면역력 강화 | 김정훈 43

작은 배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 자원봉사부 46

문화광장

다대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경계에 서서 | 박정관 47

찬송 부르는 법 | 박신화 48

11월 영락문화공간 50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51

2019 선교대회 외 52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9

11월 목회력 / 편집장 레터 60

화보 2019 선교대회

2019년 11월호 통권 550호

발행 2019. 11.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이미혜 임대현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아이엔디자인



김 윤 성 위임목사

낙엽이 되더라도 감사를!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의 끝은 낙엽인 것 같습니다. 이파리 하나가 낙엽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낙엽이 되는 과정을 통해 감사의 신앙을 배우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낙엽의 맨 처음은 ‘나뭇잎’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잎’이란 뜻이니, 나무에 종속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파리’라고 부르게 되면 서부터 나무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파리는 ‘푸른 잎’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푸른 잎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 즉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 푸른 잎이 ‘단풍’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풍이 되는 이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푸른 잎에는 초록색 외에도 여러 색소가 들어있는데, 낮이 짧아지면서 자라는

것을 멈추게 되고, 수분과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와 나뭇잎 사이에 코르크처럼 단단한 커가 만들어지고, 이 커로 인하여 잎과 가지 사이가 단절되어 잎이 더는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잎이 만든 영양소도 가지로 이동하지 못해 잎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잎이 영양소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더 진하게 나타나 단풍이 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밤낮의 기온 차이가 클수록 노란색과 빨간색의 색소들의 화학 작용이 활발해져서 색이 더 아름다운 단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잎은 가지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자연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이것은 과학 지식이고, 그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연 과목 점수가 정해졌고, 그 점수에 따라 우쭐하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색이 고운 단풍잎이 한 잎, 두 잎씩 책갈피에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단풍잎을

예쁘다고 여기게 되었는지, 왜 종이에 색깔이 배어드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책갈피에 꽂게 되었는지, 왜 예쁜 단풍잎을 건네주는 소녀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엔 그 소녀들을 마치 단풍잎인 것처럼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과학을 넘어 미학에 이르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흐르면서 단풍잎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훑어 내리던 것은 단풍잎이 땅에 떨어져 텅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잎들을 ‘낙엽’이라 불렀습니다. 이효석 선생께서는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유명한 수필에서 낙엽 타는 냄새를 갖 복아낸 커피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작가는 그 냄새에 고무되어 삶의 의욕을 느낀다고 하면서 가을을 ‘생활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웬지 제게는 가을은 수명을 마치고 텅구는 낙엽이라 생각되어 슬픈 계절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푸름을 자랑하는 이파리라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듯이,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정호승 시인의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라는 시에 나오는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 잎 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대목을 마음에 담게 되었고, 마치 인생의 덧없음을 슬퍼하는 철학자가 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파리와 함께하는 묵상의 끝은 아닙니다. 푸른 잎이 단풍잎이 되고, 단풍잎이 낙엽 되어 떨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저리지만, 이듬해 봄에 다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소망을 더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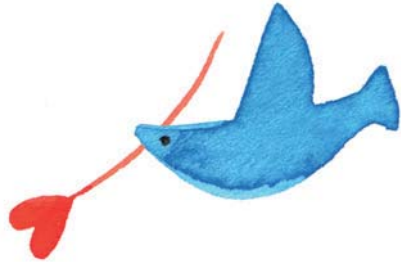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주님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철학을 넘어 신학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푸른 잎과 같던 청춘의 때를 주심도, 단풍잎처럼 원숙하게 무르익어가는 때를 주심도, 낙엽이 땅에 떨어지듯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오게 하심도, 그리고 그때 낙엽은 땅으로 떨어지지 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하실 것임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감사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힘든 마지막 과목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맨 마지막에 할 말은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마치 생애를 마치고 땅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생애를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몇 모금의 숨을 남겨 두실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름지기 연습 없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감사를 잘하기 위해 수많은 감사를 연습하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심지어 고난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가슴에도, 입에도 감사를 달고 살았으면 합니다. 다 같이 말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4부 예배?

2019년 초, 영락교회에 부임하면서 받은 저의 보직 표에는 ‘4부 예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부 예배? 예배 때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거지?’ 알고 보니 2019년부터 4부 예배를 새로운 형식으로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 시간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영락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구나!’

나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

저의 찬양 사역은 처음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님들 몇 명이 돌아가면서 금요기도회 찬양 인도를 맡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김 전도사님, 오늘 다른 전도사님들이 모두 상황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전도사님께서 금요기도회 찬양 인도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자, 교회에서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안 그래도 지금 금요기도회를 고정으로 맡아주시는 분이 안 계신데, 그냥 김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계속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연히 ‘대타’로 맡았던 것이 저의 찬양 사역의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찬양 인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도 잘 몰라서 처음엔 교육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형찬 목사
예배위원회(4부)
중구·용산교구
자원봉사부

찬양들로 콘터를 짰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중에 앞에 앉으셨던 은퇴 권사님께서 찬송가 좀 부르라고 혼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그 뒤로, 찬양 콘터를 짜기 위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뒤적거렸는지 모릅니다. 찬양 인도할 때 기타를 연주하면서 인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들고, 말도 안 되는 코드를 연주하면서(그래서 기타에 음향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는 ‘썸수’를 쓰기도 했지요)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이후, 전임전도사로, 또 목사로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양 인도자로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잘 못한다고 혹평을 듣기도 하고, 바로 교체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찬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번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영락교회로,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로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맡

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선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더 성숙한 인격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난 더 큰물에서 활동해야 할 사람이야.’ ‘지금 이 아니라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지금 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내 실력을 발휘할 거야.’ 이렇게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란 다가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 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외국인 노예로 일하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11월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만남**

“수능 긴장되지요? 심호흡하고 기도하세요.”

매년 11월이면 대입 수험생들이 그간 쌓았던 실력을 평가받는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도 구직을 위한 면접 및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으로 긴장된 시간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시험은 대학 입시생들에게 인생의 큰 관문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많이 긴장되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여유 있고 웃음이 많던 학생들도 요즘은 너무 긴장되어 굳은 얼굴로 지내거나, 공부가 잘 되지 않아 평소 가깝게 지내는 선생님께 불안함과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되는 분들, 바로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맘 때가 되면 학부모님들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곤 합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게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면 본인들의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대학교에 잘 갈 수 있을지, 또 자기가 계획한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제시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먼저 자신감을 갖고



정기남 집사
노원교구
고등부 교사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잘 도전해 보라는 식의 격려와 “너를 위해 선생님이 기도할게”라며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해줘도 사실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에는 많은 긴장으로 인해 모의고사 때 답안지에 답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경험도 있으니깐요. 이런 불안함과 과도한 긴장감으로 학생들은 그간 쌓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것 중 긴장된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런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은 그 상황에 처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이기에 본인만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긴장된 상황에서 불안할 때는 기본적으로 심호흡을 권합니다. 차분하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방법으로 3~5회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황한 기도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평안케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소신 있게 제가 준비한 대



수능을 앞두고 열린 고등부 비전 기도회

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불안함을 해소하고 평안함 속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결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반칠환 님의 시 ‘새해 첫 기적’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낱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한재욱 목사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이 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보폭,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새해의 벽찬 출발을 함께 맞는다. 새해 첫날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황새는 날고 날아서, 말은 뛰고 뛰어서, 거북이는 걷고 걸어서, 달팽이는 기고 기어서, 굴뚝이는 구르고 또 굴러서, 여기 새해 출발점에 온 것이다. 한낱한시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도착에는 1등, 2등, 3등의 높낮이가 없다. 그런데 바위는 얇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거저먹은 것 같다. 시인의 눈에 바위는 자기 식으로 가만히 얇은 채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하나님은 수능 성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 때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바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시다. 그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인생은 어느 지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

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사 41:10)

수험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두려워 말고 긴장될 때 심호흡과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준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0 수능, 평안한 마음으로 실력을 발휘하길 바라며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추신 :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부모님들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학부모일 때 영락교회 드림홀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수능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았습니다. 올해 11월 14일 수능시험 날도 학생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까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차분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남**

영락 전도챔프들의 ‘꿀팁’

- 생명대각성운동 전도사역 좌담회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명하셨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여, 모태신앙이 ‘못해 신앙’이라는 우스개를 실제로 체험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 교회는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교육하고 있다. 교회의 전도 챔피언으로 꿈꾸는 분들로부터 전도의 왕도(!)를 듣는다.

윤국명 은퇴안수집사(서초교구)는 선교부 전도훈련팀장(04~08년)과 선교부 차장(10~11년)을 지냈다. 정세영 집사(서대문·은평교구)는 전도폭발훈련(13~17년)을 받은 뒤 선교세계관학교(MP)와 제자훈련학교(MDTS)에서 전도를 배웠다. 김주휘 성도(청년부)는 선교세계관학교를 마치고 올해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있다.

어떤 전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극명 은퇴안수집

사: 모든 전도는 처음에는 관계전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가족과 처가, 친구들을 첫 전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원들도 전도 대상



이었고,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전도하는 노방전도와 군부대와 학교 전도도 중요합니다. 세례교인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병원 전도도 12곳 나가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적십자병원 다섯 곳. 서울역 용산역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 집사: 저는 아직 어정쩡한 전도자입니다. 윤 집사님은 35살부터 전도를 시작하여 35년 넘게 일 년에 약 1,5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선 살에 처음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그냥 선배 따라다니는 정도였어요. 윤 집사님께 적십자 병원부터 함께 다니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정과 스킬을 배웠지만, 스킬보다는 열정입니다.

김주희 성도: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행함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 훈련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 전도 훈련에서 첫 질문을 받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 스스로 확신이 없었어요. 1주일이 지나고 제 그룹장이 물어보더군요, “주의 자매, 비천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답을 몰랐어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자”가 바로 그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전도란 과연 무엇인가요?

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지요.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생을 알리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해보니, 교인들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을 지닌 사람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생명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부터 생명 주신 예수께 감사하며, 복음을 들으실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전도가 출발합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분들께도 그저 사랑의 표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영생 얻어서 함께 천국가자, 그게 사랑의 표현방법입니다.

김: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원에 전도 다니며 느

긴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가 육신의 병을 고친다면, 전도자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병원 전도는 방문시간 제한, 종교 활동 금지 등 제약이 많아 어렵지 않습니까?

윤: 병원이야말로 전도의 최적지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마다 전도시간 할당이 생겼습니다. 다섯 명 정도가 한 병원에 가서 병동을 나누어 돕니다. 전도가 필요한 곳은 안가는 곳이 없습니다. 전도는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고 합니다. 한번은 순천에 전도를 갔는데 막상 간 곳에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복음전하는 데 허탕을 칠 수는 없지요. 새마을호를 탔는데, 가운데 식당 칸의 앞뒤에 세 칸씩 객차가 달려있어요. 책을 보고 있거나 생각에 잠긴 분에게 복음을 권면하여 6칸에서 모두 18명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례에서 용산까지 왔더군요.

정: 현재 병원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원무과 허가를 받아 그리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고 낮에는 전도하는 경우입니다.



하루에 다섯 곳 정도 갑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네 번을 나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이화숙 집사님이 지난 6월 12일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지하철역에서 하루

종일 전도했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도를 가르친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다니... 일전에 마트에서 계산원에게 말을 건네 봤는데 확 노력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 간증 후 저도 거리와 지하철, 공원에서 전도할 수 있게 입이 떨어졌어요.

김: 저는 매주 월요일 고대안암병원에서 2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뿐 아니라 택시를 타거나 공원 산책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보다”합니다.

주변의 전도대상을 어떻게 전도하셨는지요?

윤: 허허. 가족과 직장에서 거의 다 전도했는데 유독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하면 “(천국은)오빠나 가”라고 응수합니다. 하지만 처가 쪽은 전도했습니다. 즉석 양육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예수 믿으며 세상 떠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유한양행 재단 사무국에서 일했는데 봉사활동을 한 영향이 있었던지 인간적인 신뢰를 받아서 290명 중 270명이 결신했습니다. 사장에게도 전도했어요. 사장이 다 듣고 나선 “사람이 출세하려면 술도 먹고 해야 하는데, 거기 너무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더니 다른 사장 30명을 소개하셨어요. 그 뒤로 여기저기서 전도요청도 오기도 해서 재벌급 회장에게도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남양유업 신우회장 요청으로 회장과 만났는데, 80대인 그분께 50대인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영생의 삶을 주노라, 반기를 원하느냐”하고 영접을 인도했습니다.

정: 전도사역 그룹장을 할 때 친고모와 고모부를 비롯해서 장인, 장모, 처남을 모두 전도했습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모두 전도했구요, 처제들에게는 아직 말을 못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너나 잘해” 그러는 상태입니다. 아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이제 아내와 아들 둘 다 함께 교회에 잘 다니고 있지만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금식기도 10일 쯤에 기적적으로 아내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둘을 전도하는 데는 부자간의 친밀도가 큰 요소였습니다. 제가 신앙이 많이 미숙할 때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랬기에 부자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습니다. 둘 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데 인간관계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예비 남편 어머니의 손을 잡고 결신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교회 문턱은 딱 한 번 밟아보신 분인데 저는 다른 틀을 다 깨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예비 남편이 가장 든든한 중보자입니다. 저보다 먼저 2단계 훈련을 받았어요, 제 업장에 있는 세 명의 직원도 전도했습니다. 제가 변화된 후 입사한 친구들인데, 사업장 안에서 도덕적으로 행하고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변

화된 이들의 선행에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실감합니다. 내가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가정과 일터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 가장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사람,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는 내 모든 잘못과 치부를 가릴 수 없

습니다. 제가 주변인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 그 안에서 변화된 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희의 선행을 보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행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직장가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윤: 우리는 사람이니까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는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도자는 성령이 파견한 자입니다.

전도하시면서 정말 힘든 경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도를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은혜 받은 상태에서 나가도, 너무 심하게 욕하거나 삿대질할 때 힘듭니다. 턱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욕하는 마음이 안 들

어요. 내가 회복되니까 전도를 통해 사랑하고
궁홀히 여기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김: 전도를 하다보면 분노로 가득차고, 화가 가득
한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단도 만나고 이단
으로 의심도 많이 받아요. 전도 활동을 하고 있
으면 이단들이 옆에 와서 듣는 척 하면서 말을
끊고 “영생이 어디 있느냐?”라며 훼방 놓습니
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그만큼 바르게 전
해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잘 전달하는 일꾼이 되어야겠
다고 오히려 다짐합니다. 전도할 때 영락교회
전도단이라고 정확히 소속을 밝히고 시작합니
다. 영락교회라는 이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정: 심하게 화내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화를 먼저
공감하면서 다가가입니다. 화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진행합니다.
계속 화내는 분에게는 “다음에 또 뵙죠.”하고
마무리합니다.

윤: 이단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도 중병이 들거
나 많이 아프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은 아산병원에서 병실마
다 노크하고 들어가는데 스님환자가 계셨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는 듯 했으나 나중에
주님을 영접해서 치유기도를 함께 드리며 은혜
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도 통
일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기도를 드린
일도 있습니다.

정: 저는 세 분의 스님에게 전도해봤습니다. 한 분
은 3주간 연속 방문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안
들으시더니 세 번째 만남에서는 옆 환자가 영
접하는 것을 보며 본인도 영접했습니다. 전도
과정은 사람과 사람의 심중에 있는 영혼도 알
게 되는, 인간을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전도를 펼쳐나가실 계획인가요.

윤: 전도폭발훈련에서 배운 대로 전도하면 참 쉽
습니다. 구조적으로 참 잘 짜여 있습니다. 저도 전
도훈련을 받고 놀란 것이, 전에는 성경책을 가
지고 복음을 전하면 논쟁이 벌어지곤 했는데,
복음을 압축한 전도 방법을 외워서 행하면 오
히려 은혜로운 시간을 만납니다. 하지만 훈련받
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15절 말
씀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하셨습니다.

정: 저의 소망은 앞으로 5~10년 후 아래 셋 중 하
나를 주님께서 저의 사명으로 인도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해외선교이며, 둘째로
도심지 작은 목욕탕을 열어 노숙자의 목욕을
도와주는 것이고, 셋째 단독주택 수리 봉사입
니다. 병원전도는 하는 분이 많으니 저는 좀 더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곳에서 직접 봉사하고 전
도하고 싶습니다.

김: 2년 후 예비 남편과 베트남 단기해외선교를 계
획 중입니다. 생업과 전도가 일치하는 삶을 살
고 싶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이들의 육과 영을 동시
에 채워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행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정리 이현지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8살 막내도 주일 아침 청소 봉사합니다”

- 세 자녀와 교회 안팎 청소 류승호 성도·이은희 집사 가족

한 가족 전체가 자원봉사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8세 초등학생까지 매 주일 아침 봉사에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다. 5교구 류승호 성도·이은희 집사 부부는 세 자녀 화평(17), 보배(15), 온유(8)와 함께 주일 아침 8시부터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하는 봉사에 나선다.

언제부터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은희 집사 지난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치웠다면, 지금은 시야가 넓어져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수구 안에 마구 던져버린 담배꽂초도 눈에 밟힙니다.

류승호 성도 8시 반부터 약 한 시간가량 교회 안팎에서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 골목골목을 쪽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온 가족이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류승호 성도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하소연하셨습니다. 봉사를 부탁하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봉사를 당연하게 만들자는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화평아, 보배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건널 수가 없거든. 아직 너희는 어려서 그 마음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봉사하는 법을 배우자”고 권했습니다.

이은희 집사 다행히 아이들이 선뜻 동의해 주었습니다. 가끔 투덜거리면서도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들이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셋째 온유도 형과 누나가 봉사하는 것을 보더니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년 가까이 봉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이은희 집사 청소를 하다 만원 지폐를 주운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자, 커피를 마시자, 용돈으로 쓰게 해 달라 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헌금을 했습니다. 가끔씩 예상치 못한 즐거운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화 평 첫날 기억이 생생해요. 어떤 집사님이 차를 멈춰 세우시곤 “수고해요”라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응원과 격려가 봉사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보 배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더 자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봉사를 나오면 뿌듯해요.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제가 봉사를 계속 나가게 되는 힘이에요.

온 유 저는 중부경찰서 앞을 치우는 것이 좋아요. 잘 안 집어지는 쓰레기들은 무릎을 꿇어서 하나하나 집어 쓰레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경찰서 앞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말끔해집니다. 그것을 보니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은희 집사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예뻐해 주십니다. 특히 막내 온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해요”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봉사가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이은희 집사 아이들에겐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이 제일 힘들지요. 아이들에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나가기 싫고..., 그래도 아버지가 권유한 것이니 순종하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지금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화 평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길 가던 어느 분이 “왜 너희가 청소를 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경찰들이 할 일을 왜 너희가 하냐”며 언성을 높여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유독 한 분이 그러세요. 얼마 전에도 청소 도중 그분이 또 그러셨어요.

보 배 쓰레기를 숨겨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장소에 쓰레기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면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영수증을 찢어서 던져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치우기가 참 어려워요. 통째로 버리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잘게 찢은 종이를 휴지통에 버리시든지요.

온 유 교회 주변이 많이 지저분할 때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힘은 무엇인지요.

류승호 성도 어머니께 배운 신앙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교회에 헌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화평이 꿈이 정치인인데, “쓰레기 줍는 것 하나가 네가 앞으로 받을 표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달란트를 쌓아가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은희 집사 봉사를 시작하면서 전에는 몰랐던 행복을 알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행복하고, 봉사 후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 시간이 참 귀합니다. 성도 분들의 축복과 격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는 복을 받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한 주라도 거르면 주님께 혼나는 기분”
 “쓰레기 숨겨 놓는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이 실천하시는 게 참 좋아요”

보 배 봉사를 안 하려 하면 아버지의 잔소리 폭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몸소 봉사를 실천하시는 게 참 좋아요. 그냥 시키기만 하셨다면 저도 의지가 약해졌을 것입니다.

화 평 저는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토요일 밤에 집에 오니까 주일 아침에는 정말 늦잠 좀 자고 싶지만, 요새는 한 주라도 빠지면 주님께 혼나는 기분이 듭니다. 또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속에 새겨져 순종하게 되었고, 봉사를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영락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류승호 성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자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인터뷰가 가족의 자량이 될까 염려도 했지만, 보다 많은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이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영락교회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화 평 지금은 저희 가족만 하니까 교회 둘레만 청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더 넓은 구역으로 봉사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봉사구역을 나눌 정도로 참여가 늘어났으면 합니다.

이은희 집사 많은 아이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지요.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 자녀들에게 봉사정신과 섬기는 마음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 평 기도 대각성운동처럼 봉사 대각성운동 어떨까요.

앞으로 봉사에 동참하고 싶은 가정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류승호 성도 교회 정문 옆 자원봉사부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봉사부에 소속된 분께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주변을 돌며 환경미화를 하는 자원봉사부 소속 봉사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워낙 쓰레기양이 많다 보니 힘들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생긴다면 그분에게도 힘이 될 것이고 교회 주변 환경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봉사를 한 뒤로 쓰레기가 덜 버려지고, 미리 치워주는 분들이 생기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더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5월 중순에 청년부 회장단으로부터 해외선교팀장으로 권면을 받았습니다.

회사 연차를 승인받을 수 있을지, 팀장으로 섬길 수 있을지, 경험도 없고 걱정되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기도하던 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 7:21)는 말씀과 더불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 20:1)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자’고 마음먹으며 팀장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셨으니 팀을 준비하는 과정



선교지 현지 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는 영락 청년들

가운데서 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겠지 하며 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팀원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해외선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혜선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월부터 선교사님과 카카오톡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농장 환경개선과 성삼위일체장로교회 예배참석, 병원 위문공연, 3국(에스토니아 탈린,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비전 트립 일정을 듣고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쳤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한국에 갑작스러운 태풍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외선교 일정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며 날씨가 맑아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최재선 목사님을 포함한 13명의 선교팀원은 풀코보공항에 도착하여 선교사님을 단번에 만나 두나이농장으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었던 농장 곳곳을 목사님과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청소하고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농장 마당에는 잡초들이 많이 자라 있었는데, 마당도 깨끗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나봅니다. 작동하지 않던 예초기를 우리 팀원이 고쳐서 예정에도 없었던 마당까지 정리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삼위일체장로교회를 방문한 날은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준비한 러시아어 찬양을 교인들과 갈



청년들이 현지 농장에서 환경 개선 작업을 펼쳤다

이 부르고 현지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청년들로부터 후원받아 제작한 수건과 부채도 교회에 전달하면서 청년부 지체들과 다 같이 사역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적응되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 위문공연을 하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우리 팀을 통해 선교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900일 동안 포위된 상태에서 살아남아 조국을 지킨 어른들(국민들이 존귀히 여김)이 계시는 요양병원인 “돔 인제르나트”에 도착하여 위문공연(concert)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농장에서 나무를 베어 만든 십자가와 전구로 인해 내부 강당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강당은 어르신들로 꽉 찼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준비했던 무용과 무언극이 끝나니 어르신들은 저희를 손자, 손녀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병원관계자 분들은 감사 인사와 함께 다과,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후원받아 가져간 수건을 들고 병원(요양원) 2층부터 4층까지 병실을 돌며 인사하며 포옹하고 덕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

과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진행된 2박 3일 간의 3국(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비전트립 일정도 선교사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선교란 무엇인지, 한국의 영성, 남자와 여자의 역할, 성경 속의 롤 모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뿐 아니라 최 목사님,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을 드리러 갔는데, 모두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2019년의 잊을 수 없는 해외 선교봉사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팀장으로 섬기면서 부족한 저에게 주님이 훈련시킨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으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본을 보여주신 것같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일치시키려 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는 말씀을 붙잡고 해선을 통해 배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제28차 청년부 해외 선교봉사에 동행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교사님, 목사님, 팀원들 삶 속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김혜인 성도
청년부 광야소리
제28차 해외선교팀장

자녀들이 주저할 때 엄마가 먼저 기도하세요



이제 대입 수능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저도 둘째 아들의 입시를 치르면서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이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삶에서 중요한 시험 중의 하나가 대입시험인데 그 과정에서 학생이나 부모나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작년 초 고3이 된 둘째 아들이 갑자기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입시학원에 상담을 갔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소위 잘나가는 강사들 수업은 일요일 오전입니다.” 성적과 목표대학에 대한 상담 끝에 부원장이 그렇게 말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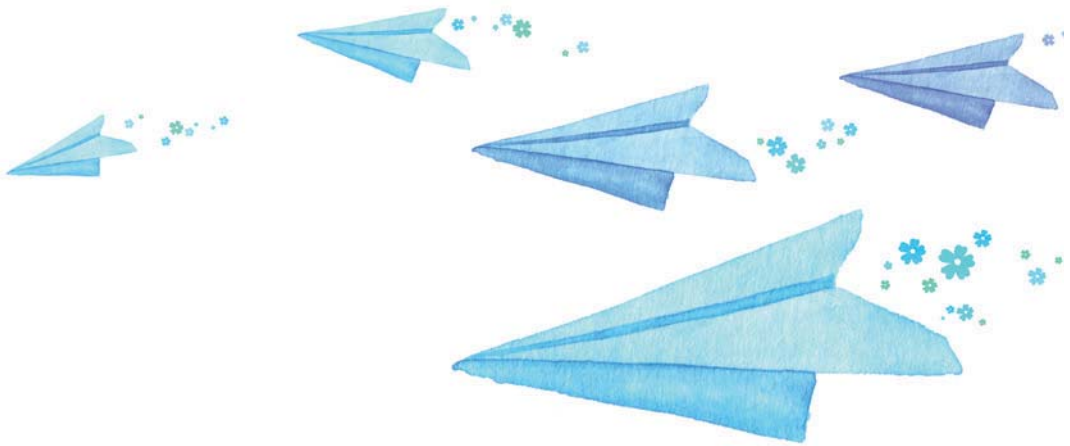
다. 그제서야 내가 맡았던 학생들이 점점 주일예배에 빠지던 일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교육을 잘 모르던 나는 시험 기간 보강만 주일 오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주일 예배시간에 있다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지요.

제가 고등부 교사만 아니었더라도 이과생 아들의 수학 수업을 등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등부 학생들에게 시험기간이라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예배시간에 진행되는 인기 강의에 등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시간대의 인기가 별로 없다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시간을 지킨 뒤, 매일 고등부 『애플』지를 활용한 QT를 이어갔습니다. 기도는 때마다 시작된 가족 특별새벽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를 드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11월 특새에서는 수험생 가족을 앞으로 불러 축복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우리 아들이 고3이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받았습니다.



김숙영 집사
고양·파주교구
고등부 교사



이렇게 준비한 수능이지만 기적은 없었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도록 수시, 정시, 참 많은 불합격을 이어 갔습니다. 정시 발표를 기다리며, 성경통독세미나에 등록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었습니다. 아이는 1주일간 최연소 등록생으로 성경통독도 성실하게 마쳤지만, 어디에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위 일타강사의 강의를 등록했으면, 결과는 달랐을지 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진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 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활부 활동을 하고 수련 회에 갔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저는 함께 고3 생활을 마쳤 습니다.

입시 결과가 궁금하시지요? 많은 기도과 마음 졸임 끝 에, 2월 말 추가모집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아이는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사양성부에서 교사 교육을 받 으며 대학부에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영락의 부모님들과 저의 지난 1년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주저할 때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훈련과 수

련회, 비전트립을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란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을 봅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나아가 나라와 전 세계의 인재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느려 보 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고등부 예배를 소홀히 했더라도 수능이 끝나 고 2월에 졸업하기까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고3 수련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배만 드리느라 서먹 한 친구들이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서로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1월에 마지막 겨울 수련회가 있고,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못했다면 2월에 4주 교육 후 3월에 세 례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다면 2월에 성경통독 세미나에 참 여하여 성경을 1독하는 기쁨을 누리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의 자녀로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변화되길 기대해 보 니다. **만남**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김주신 선교사
동북아



국가 주도 종교정책으로 국가에 ‘충성’ 강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기독교 박해국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 전해지는 박해 소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떤 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떤 나라는 겉으로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듯 하나 온전한 신앙의 자유가 아닌 특정장소에서만 종교활동이 허락된 곳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힘들어 보입니까? 정답은 두 곳 모두 힘듭니다. 전자는 핍박을 견디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때

문에 힘들다면 후자는 특정장소 외의 신앙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불필요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지정장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하게 되고 삶 속에서 실천은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만 보아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전도와 구제의 실천모습으로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데, 위와



필자는 복음의 접촉점을 선교지 현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화영역에서 만들고자 가정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나라에서는 기독교의 역동성을 제한하여 특정장소 (교회)에만 머물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는 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아주 큰 소리와 박수로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오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삶의 실천이 없이 교회 내의 종교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바뀐 종교정책으로 감시통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도 하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국가에 충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핍박을 받더라도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최종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로 가온 세계관에 맞서야

그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숨어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는 그나마 순수성을 애써 지켜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이

런 방법도 최선의 방법은 못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동체는 불가피하게 외부사람을 견제하게 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고립되거나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공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이며 이 보편적인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가치가 세상의 세계관보다 우위에 있을 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세계관은 기존 사회 안에 이미 형성된 모든 문화영역의 세계관과 맞서게 되는데 이때 기독교의 '이웃사랑' 세계관이 세상의 '이익구조'와 '이기적인 가치관'에 맞서 보다 나은 것으로 인식되면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입으로 다 전하기 어렵습니다. '백문불여일견'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진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곳의 기존 교회

들은 종교 활동의 제한문제와 정치화된 신앙교육 그리고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삶의 자리에서 보여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음 전도의 방법들이 요청됩니다.

여기서 ‘왜 복음이 사회의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인 종교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교육,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삶에서 나타내는 실천적 모습을 통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의 접촉점을 지역사회가 필요한 문화의 영역에서 만들고자 가정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가정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놀이교육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주제놀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맛별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과 방학 중일 돌봄 교실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교실, 교육 강좌, 미니공연, 상담과정을 수시로 개설하여 지역의 필요를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주변 교회들의 공동체와 가정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신앙교육 교구(教具)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현지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앙교육 자료들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 교회를 한번에 도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작업은 장차 전문팀을 구성할 계획

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사역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공동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면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단절문제를 극복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국가정책이 제한한다고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다 나은 의를 믿는 우리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무엇을 하느냐?’도가 중요하지만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계속 반문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 땅에서 직접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가 되려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선교접근방법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의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은 항상 낯설기도 하고 저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늘 감격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영락교회가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선교지에서 저의 인격으로 인해 주님이 가려지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신앙교육 자료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많은 교회와 가정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거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평양1866”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 musical



몇몇 청년들과 함께 문화선교부로부터 뮤지컬 참여에 관한 권유를 받던 날,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열심히 연습했던 지난날들이 떠오르고, 이 뮤지컬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청년들은 기대와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혹, 우리가 뮤지컬을 망치지는 않을까?’, ‘조선을 향한 선교사님의 그 열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쩌나?’, ‘정말 우리의 노래와 몸짓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등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성원 성도
청년부

그렇게 시작된 연습 첫날, 엄청난 안무와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 겁을 먹었지만, 그 순간은 잠시였습니다. 각자 뚜렷한 특징이 있는 역할들을 하나씩 맡음으로써 어느새 저희는 뮤지컬의 인물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1866년도에 평양에서 살아 숨 쉬는 연년, 삼봉, 막달, 점이 등의 인물이 되어서 그 시대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습을 한 차례씩 해나갈수록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품으셨던 우리 조선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모임 때마다 말씀기도집 2권, 3권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누는 경건회를 시작으로 안무, 노래를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뮤지컬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저희에게는 하나하나가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선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무에 집중하면 노래를 잊어버리고, 노래하면서 처음 해보는 연기도 해야 하니... 쉴 틈 없이 이 세 가지 모두가 될 때까지 하고 또 하며 익숙해지도록 연습했습니다. 과정 중에 때로는 힘들고,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는 더욱 함께 해주신 분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셔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연습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공연 당일, 수많은 성도님이 가득 메워주신 베다니홀 좌석을 바라보며 긴장 속에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공연은 끝이 났고, 저희의 마음속엔 무사히 잘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매일 밤 다 같이 모여 땀 흘리며 연습을 하지 못한다는 섭섭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습에만 몰두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뮤지컬을 했던 한 자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0여 년 전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마 ‘실패한 선교사’, ‘불행한 선교사’라는 말을 들었을 것 같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를 뱃속 아이와 함께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고, 희망이 없던 조선에 와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평양1866” 공연



창작뮤지컬 “평양1866”은 1866년 9월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의 일화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못한 채 순교하셨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선교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사람.”

맞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조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말이죠. 이번 뮤지컬을 통해 “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나? 과연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선교를 실천하고 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선교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작은 예수가 되어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 큰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일상 속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언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사람이 기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주시고, 연습하는 수많은 날 동안 자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피곤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신 문화선교부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주님의 전도사역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김홍선 성도
용인·화성교구
토요전도훈련학교

2019년 1월에 새신자 등록 후 전도훈련학교 1단계 훈련을 마치고 2단계에서 훈련받고 있는 김홍선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개인 간증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 저를 주님 품 안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이직했습니다. 영락교회 정문 옆에 있는 노랑풍선(여행사)입니다. 노랑풍선(여행사) 앞에 서 있는데 영락교회의 모습에 광채가 더하여 제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어머니를 따라 영락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기에 더욱 반가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락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 후 주님은 저를 전도훈련학교로 바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술과 담배를 의지하며 남을 미워하고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영혼을 낙원으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졌습니다.

전도훈련을 받으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중에 제 신앙이 더욱 분명해졌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매주 토요일 적십자 병원 팀과 전도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도 때 받은 은혜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45세 되신 여성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종교가 없고, 회사원이며, 결혼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오른쪽 발가락 두 개를 절단했으며, 그 때문에 발목과 발바닥에 붕대를 감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도 당뇨약을 먹고 있고 우리는 누구든지 모두 다



전도훈련학교를 수료하며 (앞줄 왼쪽 첫 번째)

병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눈빛을 반짝이며 제게 “언제부터 당뇨약을 먹었냐”고 물었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대상자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그 환우 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확신 질문을 드렸더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혜’에 이어 ‘인간’까지 전했을 때 그분이 피곤하다고 해서 보류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같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환우 분이 저를 보면서 반갑게 또 오셨냐고 하셔서 용기를 내어 복음 부문 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결신 기도’까

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신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신 기도 후에 그분은 자신이 독신이고 병문안 올 사람이 없어 외롭던 중 두 번이나 찾아와서 기도해주니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퇴원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결신했습니다.

할렐루야 ~~~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날까지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남**

하나님 함께하심에…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전도의 희열



이화숙 집사
강동·송파교구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야,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전교인 전도 주간이 되면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전도해야 하는 그 시간을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구역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서도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전도훈련을 받고 있던 동서의 권유로 기도 후원자가 되었고 메시지로 전해 주는 전도 보고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도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받는 동역자들과 동네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허락되지 않은 병원이라 쫓겨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매주 정기적으로 전도가 허락된 병원에 가고 있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면 돌아오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병원전도를 하면서 생의 끝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만났고, 병상에서 약해진 몸과 마음이 복음을 통해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동네 병원에 전하러 다니던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촌 지하철역에 앉아 계신 노숙자 분들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도 앉아 계시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제4여전도회 중앙회 월례회에서 김운성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며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노숙자 분들께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역자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김밥과 생수를 사서 지하철역에 가서 노숙자 분들께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에는 백병원 앞의 야쿠르

트 아주머니께도 전도지를 드리며 예수님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지만 새로운 만화 전도지를 받으며 읽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기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가서 장보며 판매하시는 분께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 깜짝 놀랐지만, 이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이웃과 동네 아이들, 아파트 관리직원분들께도 인사하고 얘기 나누다가 “저는 영락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하며 기회 주실 때마다 마주하는 분들께 전도지와 비타민을 드리며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두 딸의 친구들이 놀러와도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하지말라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안 믿는 친구라며 먼저 귀뜸도 해주고 길가다가 새로 전학 온 친구를 만났을 때는 복음 전해야한다고 해서 근처 버블티가게에 들어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택배기사님과, AS기사님, 소독이나 가스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께도 전도지와 음료수를 드리며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며 “엄마 전도 안해?” 라고 말하던 막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도 전도훈련에 함께하는 동서와 저는 기회 주실 때 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는 어머니께서도 먼저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십니다. 남편도 무언의

동역자로 함께하며 응원해주고 전한 후에는 아이들도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며 묻습니다. 심지어 여행을 함께 가게 된 낯선 분들께도 여행기간 동안 친해지며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병원전도는 물론 지하철과 택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지와 쏠라씨를 드리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저를 전도 훈련을 통해 바꾸시고 가족들까지도 동역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시편51:12,15)*

영락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경험하시길 기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만남**



우리나라 직장인예배의 효시



- 「금요직장인예배」 50년 이야기

금요직장인예배가 지난 9월 첫 금요일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11월1일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50년 중 38년을 함께 해온 인연으로 필자가 지난 50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초창기 기록이 없어 당시 교인들의 기억을 기초로 했다.

제1기 성장기(1969~1979)

영락교회 직장인예배(금요정오예배)는 한경직 목사님 은퇴 4년 전인 1969년 9월5일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됐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옛 선교관 지하에서 박조준 당시 부목사가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처음에는 10여 명이 모였다.

당시 교회 주변에는 쌍용 등 주요 기업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후 교회 정원(50주년기념관 자리)에서 쉬다 가곤 했다. 하용조 목사가 인도하는 연예인 성경공부반도 있었다. 마침 한경직 목사님은 1961년경부터 고려합섬 신우회를 지도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박조준 목사의 제안으로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운영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성경공부는 새로 지은 봉사관 지하로 자리를 옮겨 예배 형식으로 성장했다. 박조준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하면서 예배는 선교부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했다. 창립 4년 후에는 예배를 위해 백합회가 조직되어 강순애, 홍인숙 두 분이, 나중에는 10여 명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끓인 커피에 빵까지 대접했다.

봉사관으로 옮긴 후 참석 인원은 50명 정도였다. 순서지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예배 반주는 이진희 권사에 이어 조익정 권사가 맡았다. 찬양대는 없었고 가끔 특송이 있었다.

제2기 정착·부흥기(1980~1996)

백합회에 이어 루디아회가 1980년경부터 안내와 커피, 빵 봉사를 맡았다.





1 옛 선교관에 열린 1983년 예배 모습



2 1983년 예배 후 선교관 옆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친교 시간

1981년 필자가 직장인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용범, 권병학 전도사 같은 열정적인 설교자들이 등장하면서 직장인예배는 정착기에서 부흥기에 접어들었다.

드디어 1983년, 참석자가 늘어나자 더 넓은 옛 선교관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다. 이용식, 이응삼, 김규, 노용한, 정영태, 김기남 목사 등 선교부 담당 목사들이 전도사들과 함께 설교를 맡았다. 예배 인원은 계속 늘어나 400명 정도까지 모였던 것 같다. 이때가 직장인예배 전성기였다. 우리나라 경제도 전성기였다.

1994년, 50주년기념관 건립을 위해 예배 장소를 다시 봉사관으로 옮기면서 예배 인원 증가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설교를 강화하기 위해 류종상 목사가 수년간 설교를 전담했고 최창범 목사가 뒤를 이었다.

제3기 안정기(새 선교관 시대)

1997년 현재의 선교관으로 예배 장소를 이전했다. 준공 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직장인들이 장의자용 방식을 한물했다. 선교관에서 30주년(1999년), 40주년(2009), 그리고 50주년(2019년)을 맞게 되면서 직장인예배는 안정

기에 들어섰다. 30주년 때에는 직장인예배를 마련해준 영락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새 선교관으로 옮긴 후 예배 인도와 설교는 김범식, 노철규, 이승준, 권오성, 최경영, 장병희 목사 등이 선교부 소속 전도사들과 나누어 맡았다. 오르간, 영상설비를 갖춘 좋은 환경 덕분에 찬양대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예배 순서에 신우회 참여도 늘렸다. 신우회 찬양대회도 열었다.

그럼에도 예배 인원수는 대체로 늘어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새 선교관으로 오던 1997년에 터진 IMF 금융 위기 때문이다. 직장사회에 직격탄이 떨어졌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 직장인예배 참석자들, 찬양대원들도 직장을 잃고 하나 둘 떠나갔다. 그 충격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교회 주변 직장인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바뀐 직장인들에게 우리 예배를 계속 알려야 했다. 그래서 그동안 6종의 전도지를 자체 제작해 교회 주변 직장인들에게 나눠왔다.

40주년(2009) 전후로 교회가 백병원과 직장인예배 담당 교역자를 따로 임명했다. 설교자가 목사에서 전도사로 조정되고, 담당이 자주 바뀌면서 한때 300명 가까이 모였



던 예배인원은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7년 가을 첫 여성 목회자인 신주현 당시 전도사가 부임한 후, 인근 직장 신우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덕분에 120여 명으로 줄어있던 참석인원은 160명 정도로 다시 늘어났다. 이번 50주년이 직장인예배 도약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예배 참석자들

예배 참석자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소속 직장도 다양하고 직급도 다르다. 멀리서 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소속 교단이나 직분도 다양하다. 화이트 컬러(사무직)가 대부분이어서 지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노숙자들도 일부 참석한다. 청년 직장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점심시간을 쪼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 목회자가 이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다.

직장인예배의 의미와 효과

“금요일 점심은 하나님과 드세요”란 전도지 카피처럼, 직장인예배는 일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영적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준다. 직장인예배는 땅끝에서 사는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다른 직장인예배들

영락교회가 직장인예배를 시작한 지 10년 후부터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삶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은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직장인예배가 시작됐다.

- **종교교회 목요직장인예배** : 정부종합청사 등의 직장인 300여 명이 모인다. 1980년에 시작됐다. 현재 전임 사역자를 두어 주변 직장신우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남대문교회 수요직장인예배** : 1978년 대우그룹 신우회에 예배 장소를 빌려주다가 2003년부터 교회가 예배를 주관하기 시작했다.
- **서소문교회 금요직장인예배** : 1983년에 시작됐다. 짧은 예배 후 식사를 제공한다.
- **정동제일교회 수요직장인예배** : 1984년에 주변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됐다. 260명 정도가 모인다. 평일 점심시간에 연회도 열고 있다.
- **새문안교회 목요직장인예배** : 1985년에 시작됐다. 예배당 건축으로 잠시 쉬었지만 250명 정도 참석한다.
- 이외에도 동송교회(대학로직장인예배), 충무교회, 향린교회, 구세군교회, 여의도제일교회, 연동교회, 상암동교회 등이 직장인예배를 열고 있다. 강남에서는 서울영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서초반석교회, 사랑의 교회 등에 직장인예배가 있다. 온누리교회는 여러 커피숍 등에서 새벽 직장인예배를 드린다.



3 1977년 9월 9일 금요직장예배 제8주년 기념예배(박조준 목사설교)

4 창립30주년기념예배(1999년)

5 1993년 창립24주년 기념예배

1~5 사진제공 영락교회 역사자료실

직장인예배를 지켜온 이들

직장인예배 50주년의 뒤에는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 초창기에 봉사해온 백합회, 뒤를 이은 루디아회, 또 그 뒤를 이은 현재의 봉사팀 등. 특히 30대 초반이던 1980년부터 30년간 봉사를 해온 루디아회의 헌신은 특히 직장인예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고 이보원 집사는 금요일마다 리어카에 앰프를 싣고 와서 젊은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주었다.

또한 1981년 필자가 조직한 찬양대가 38년 동안 직장인예배의 중심 역할을 해온 것도 감사하다. 여기에는 2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김보환, 오현민 반주자와 이태석, 차혜란, 이환석, 조은경 대원 등이 있다. 그리고 한혜옥, 박혜란, 정오순 대장 등의 헌신이 있었다.

주말교회에서 주중교회로!

필자가 조사해본 바로는 대표적인 직장인예배의 설교는 담임목사가 맡고 있다. 직장인 선교가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김운성 목사님은 교회가 '주말 교회'에서 '주중 교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직장인예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다. 우리 직장인예배가 그 모델이자, 직장선교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한다. 50년간 직장인예배를 보살펴주신 영락교회에 직장인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만남**



이의용 장로

필자는 쌍용 재직 중이던 1981년에 금요직장인예배 찬양대를 조직해 38년 동안 지휘를 해오면서 금요직장인예배를 섬겨 오고 있다. 현재 국민대 교수, 일산충신교회 장로.

영락교회와 금요직장인예배, 그리고 나

저는 1978년부터 79년까지 영락교회 앞에 있던 (주)쌍용에서 근무했습니다. 종합상사의 철강수출은 격무였습니다. 업무로 힘들어하는 제게 직장인을 위한 영락교회 금요예배는 항상 기다려지며 사모하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부가 주관하는 금요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찬양하던 시간들...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지만, 금요예배를 마친 후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일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시에 영락교회 전도부에서 금요정오예배 10주년 기념 선물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 바울에게 배운다』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책의 3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가? 이 자족의 비결이야말로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사실 보람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우자...” 사도 바울이 전한 자족의 비결을 강조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제게는 지난 40년의 미국 생활에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 6년과 교수 생활 34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족의 비결을 생각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 전도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직장인을 위한 금요예배를 드리기 훨씬 전부터 영락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세운 대광중학교를 졸업(1969년)했기 때문입니다. 교감선생님이셨던 고 김종수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웠으며, 사랑이 많으셨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영락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부흥회를 열어 주셔서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김종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



조호제 장로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석좌교수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장로



룹니다. 그 당시 대광중학교 졸업생들에게 김중수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난 2015년에 안식년을 맞아 고려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가르치는 중에 오랜 친구인 영락교회 이동훈 집사로부터 영락교회 합창제에 초청받았습니다. 영락교회의 각 찬양대가 각기 2~3곡의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찬양대가 함께 찬양했는데, 약 1,000여 명의 찬양 대원들이 강당의 앞과 양옆, 그리고 2층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의 찬양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찬양을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내심으로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8월 영락교회 수요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운성 목사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영락교회 성도들의 행복을 함께 느끼며, 오랜 세월 장자교회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온 영락교회가 독수리가 비상하듯 다시 날아오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족의 비결을 매일 다시 연습하며, 학문 연구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작은 섬김의 삶을 주님께 올려 드리리라 다짐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

신 영락교회와 김운성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의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락교회를 통해서, 영락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사랑이 영락교회를 통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남**



섬김의 본을 보여준 구역장님처럼... 하루하루 '순종의 길' 걷고 있습니다

제게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구역장의 모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지금도 만나면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 빛진 자 된 마음을 어찌 갚을까하는 생각뿐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파견으로 구역을 섬기던 제가 구역권사님의 은퇴로 30구역을 섬기게 된 것이 4년 전입니다. 15년 전 여러 구역이 모여 지역에 배를 드리던 시절, 젊고 활기차게 구역을 섬기셨던 권사님들의 머리엔 안 눈이 내리고 이제는 모두 은퇴하셔서 마주 보이는 아파트 친구 분도 만날 수가 없어 아쉬워하는 연세가 되었습니다.

늦둥이를 등에 업고 모임에 참석했던 것이 어제 같던 아기 엄마가 구역장이 되어 왔다며 반겨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구역이다 보니 거동이 불편해 구역예배 모임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만남』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권찰공부 때 나눴던 내용을 함께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전달해드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구역심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랜만에 백혜자 장로님 댁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구역식구



안영순 권사
서초교구 30구역장

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지면을 통해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권사님 한 분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던 차에 2018년 9월호 『만남』에 실린 권사님의 작품을 보고 영락미술협회 회원임을 알게 되어 전화심방을 했습니다.

젊은 날 열심히 봉사하시던 권사님의 소식이 끊겨 안타까워하던 중, 구역을 맡은 지 3년 만에 연결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서는 다리도 불편하시고 해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려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남편분의 병환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모시고 병원심방을 다녀오며 말씀과 찬양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바빠 홀로 되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역을 섬기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기억은 홀로 계시는 권사님택을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긴 시간 나눔을 통해 영



거동이 불편한 구역식구를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

혼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알고 복음제시를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대화가 없었던 두 분을 따로 만나 이야기 들어드리며 가교 역할을 해서 회복이 된 일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였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만남**

“인생의 세 가지 꽃”

- 노화, 분화 그리고 영화



아직 미혼의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남의 일이겠거니 했던 ‘시부모·장인장모학교’. 예비 시부모들도 교육받고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는 주위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니 의외로 순순히 참여하겠다고 하여 4주간의 과정에 참여했다. 시부모의 역할과 장인장모의 역할이 쉽지만은 않은 듯,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셨다.

나이 들기의 심리와 영성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 것인가를 시작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노년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이사야 46장 4절 말씀처럼 전 생애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족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4)



김영숙 권사
강동·송파교구

소소하고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복을 찾거나, 주어진 범위 안에서 물질을 넉넉히 사용하기, 따뜻하고 적극적인 인간관계 맺기, 내 몸을 힘들게 하는 만성질환을 인정하고 동반적인 상태임을 기억하기 등 노화를 즐겁게 받아들이 수 있을 것 같다.

내 안의 두 마리의 개(선입견, 편견)를 없애기 위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며, 고정관념으로 인해 부정적인 태도나 습관적으로 굳어진 생각들을 인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회복을 위한 발돋움, 가족의 분화

예전부터 있어 온 고부갈등에 더해, 요즘은 장서 갈등도 많다고 한다. 가족관계에서 필요한 모범답안은 과연 무엇일까?

흔히 룯과 같은 현숙한 며느리를 원하지만, 과연 나옴이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가족과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없이는 안된다고 한다. 내 자녀에게서만 지지받으려 하면 안 된다. 교회 생활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배웠다.

조별 토의 시간과 발표를 통해 여러 시부모, 장인, 장모의 입장에서 들려주는 경험담은 공감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자아냈다. 강의를 통해 가족도 어느 정도의 경계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관계보다 더 분화된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고부들이나 장서 관계에서 ‘나는 잘 모르오’, 우주에 떠 있는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감정은 내버려 두면 차츰 잦아들기 때문에 어떠한 갈등상황에서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을 멈추고, 아무튼… 해 본다. 많은 시나리오를 써가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화색도 다양함을 인정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이렇다.

첫째, 나는 모르오! 주님은 아시오!

둘째, 문제는 항상 있다! 필요한 것은 주님!

셋째, 아무튼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

아름다운 여행

죽음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강의를 통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아직은 나에게겐 닥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의 유한함과 귀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을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긍정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시며,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죽음이 더는 고통이 아니므로 죽음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만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다.

죽음을 일상의 대화로 탁상 위에 올려놓을 때, 더는 부정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의 삶





상담부가 주관한 제5기 시부모·장인장모학교에는 37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나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하나님께 소환장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가족: 라멘샵'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본 부모님의 일기와 사진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간 주인공, 그곳에서 아들의 시선으로 엄마의 아픈 상처를 알게 되고 일본의 라멘과 싱가포르의 바쿠테라는 음식이 하나가 되면서 의절 한 딸을 이해한다. 엄마의 음식 속에서 외할머니의 그리움을 깨달으면서 화해하는 가족치유 영화였다.

잔잔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영화였다. 음식을 통해 성장하는 청년의 모습, 가족과 화해하는 치유, 자연을 통한 힐링을 느꼈다. 음식을 통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따스함과 함께 관계와 관계를 연결하는 힘이 있음을 느꼈다.

영화의 마무리 무렵에 손수건을 찾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가족들이 같이 보면 좋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이념이나 고정관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또는 오해로 인해 마음을 닫고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 같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부모·장인장모학교'를 통해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미래의 시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자녀와 나와야 관계, 그리고 내 삶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미래의 죽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시간에 대한 소중함과 사명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 인생의 세 가지 꽃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다. **만남**

환절기 질병과 면역력 강화



김정훈 장로
동대문·중랑교구
청년부 부장, 내과 전문의

지난 추석연휴 때 5일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으로 단기 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진료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기 환자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아마도 건기 기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환절기에는 특히 낮과 밤의 기온 차,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우리 몸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게 피곤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환절기에 일어나는 질병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 몸의 면역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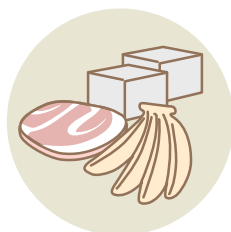
환절기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예방

1) 감기

일교차가 심해지거나 건조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콧속의 점막이 마르고, 과로로 피로한 몸에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침범해 감기가 발병하게 됩니다.

다. 감기가 심해지면 중이염,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일주일 치료받아야 되고 집에서 안정하면 7일이 걸린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기는特效약이 없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관리 그리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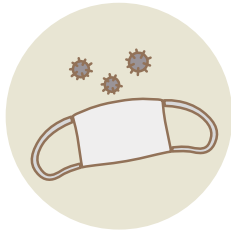


2) 알레르기 비염

콧물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밤새도록 휴지 한 통을 다 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채기가 심하고 코가 막혀서 호흡이 힘들고, 답답한 증상으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코 가려움증, 두통,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인후두염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먼지가 많은 카페트 사용을 피하고, 요, 이

불, 방석 등은 자주 햇볕에 말려 소독하기 바랍니다. 진드기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내온도는 20℃, 습도는 40~60%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3) 뇌졸중

심한 일교차로 인해 스트레스가 혈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혈관이 더욱 수축되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뇌졸중 발생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 **예방:** 뇌졸중은 생명을 앗아가는 질환이고, 회복해도 몸에 마비 증상, 인지장애증상 등의 합병증으로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 혈압을 조절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외투와 모자, 장갑 등을 갖추십시오. 또한 따뜻한 내의를 입어서 체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4) 피부 건조증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때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각질이 잘 생기는 피부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피부건선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 **예방:** 충분한 수분섭취와 면역력을 증강시켜 줘야 합니다. 물을 하루 1.5~2.0리터 이상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8가지 방법

면역력을 키우는 데 특별한 묘약이나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관리를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생활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1) 규칙적 운동

하루 30분~6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타기 등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적절히 하면, 심장과 근육이 단련되고, 몸매를 보기 좋게 만들 뿐 아니라 면역 시스템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감염을 발견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T세포는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데, 버밍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클 타는 55~79세 성인들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T세포를 생성했습니다. 운동이 감기를 비롯한 상부호흡기 감염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6시간 미만 주무신다면 백혈구가 병원균 침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 독감에 걸리기 쉽습니다.

3) 올바른 식단, 제철 음식 먹기

소화관에는 면역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수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가 잘 생기는데, 지방은 적게 섬유소는 풍부하게 섭취하면 장내 유익한 균의 수가 늘어납니다.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에 들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은 항생제를 복용할 때 발생하는 감염성 설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제철에 나오는 과일과 채소도 골고루 섭취하기 바랍니다.

4) 금주 또는 절주

술을 과음하는 사람들은 암세포와 싸우는 백혈구 수치가 감소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섯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음을 하면 박테리아를 무찌르는 면역세포, 매크로파지의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 금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독감이나 폐렴 등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니코틴이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는 호중성 백혈구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6) 햇볕

햇볕을 쬔 때 만들어지는 비타민D는 면역체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염증성 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즘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막는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해로운 균을 잡아먹는 매크로파지의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7) 손 씻는 습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손 씻기를 '셀프백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외부 세균 및 바이러스가 눈, 코, 입 등을 통해 몸속으로 감염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실험결과에 의하면 성인이 시간당 얼굴을 만지는 평균횟수가 약 3.3~3.6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얼굴을 만지는 횟수는 50번 이상이 됩니다. 손 씻기만으로 독감 등 호흡기질환의 예방효과(21%), 설사성질환 예방효과(47%), 소화기질환 예방효과(31%)가 있다는 실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8) 예방주사맞기

어르신들도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적절한 시기에 맞고, 폐렴 예방주사, 대상포진 예방주사,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혼합백신) 예방주사를 맞아줘야 합니다.

좋은 생활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체를 잘 관리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생명을 낳아 기르는 생명대각성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만남**

나의 작은 배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안팎에서 꼭 필요한 안내와 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용 예절을 잘 지키면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주요 안내·관리·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① **안내데스크** : 예배와 장소 등을 안내합니다. 유니폼을 입은 봉사자들은 개인 물품을 맡아드리지는 않습니다. 간혹 안내데스크 내부로 들어와 개인용 무를 보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는 사무실과 같은 공무 공간이니 다른 장소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② **엘리베이터 안내** : 엘리베이터가 붐비는 시간에는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탑승 우선권을 드립니다. 만원일 때 억지로 타거나 문이 닫히려 할 때 열림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지체되어 모두에게 불편합니다. 오름 방향과 내림 방향을 잘 파악해 자신의

방향에 맞게 타기 바랍니다. 내려가실 분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분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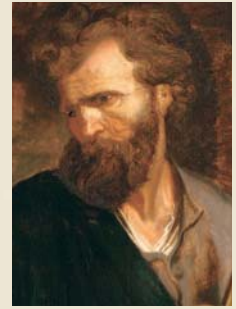
③ **119 위급관리** :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는 위급환자용입니다. 일반 노약자용으로 사용하면 위급시 큰 불편이 생깁니다.

④ **식당지원** : 줄서기를 지키고, 자신이 식사한 자리를 깨끗이 해 다음 사람을 기쁘게 하며,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받아가기 바랍니다.

제공 자원봉사부

		주요 업무	위치	시간	지켜야 할 에티켓
안 내	안내데스크팀	교회 안팎 손님의 문의응대	봉사관, 50주년기념관	09:00 ~16:30	짐을 맡아드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안내팀	우선 탑승관리 노약자보호	기념관1층, B1/2층	09:00 ~15:10	붐비는 시간에는 노약자 외에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관 리	분실물관리팀	분실물관리	봉사관1층	08:00 ~16:30	
	119 위급관리팀	휠체어 제공 위급환자 이송	봉사관, 기념관 앞	07:00 ~16:00	위급환자용입니다. 노약자용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지 원	식당지원팀	줄서기, 노약자 배려, 잔반수거 지원	제1식당	08:00 ~15:00	식사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음식을 남기지 맙시다.
	꿈나무쉼터팀	교회출석 부모의 자녀를 돌봄 (유치부~중학생)	50주년기념관 707호	15:00 ~16:00	

다대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경계에 서서



제자의 목록은 요한복음 외의 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도 보인다. 이 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대오”(마
10:3; 막 3:18)가 등장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다
대오 대신 “알패오의 아들 유다”(눅 6:16; 행 1:13)가 보
인다. 따라서 이 두 이름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
하다. 신약시대에는 한 사람이 두어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다대오는 유다의 별명인 듯하다.
물론 이 유다는 예수를 판 가롯 유다와는 다른 사람이다.

위에서 언급한 구절에는 이름만 나올 뿐 언행에 대한 서
술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대오가 어떤 생각을 가졌으
며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전설에 의존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은 방법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이는 “가롯인 아닌 유다”(요
14:22)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요
한복음 14장의 배경이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가진 마지막
만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유다는 알패오의 아들 유다일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
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아
들)을 드러내겠다는 말씀(21절)을 듣고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에는 나타
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22절). 이 질문
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소원이 담겨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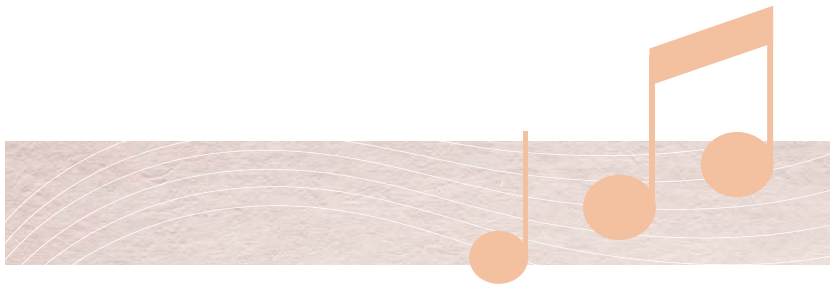
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23절)은 동문서답 같아 보

인다. 그러나 그 대답을 유다의 질문 앞에 있는 말씀(21
절)과 함께 보면, 그 대답의 취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
다. 예수의 정체성은 예수를 사랑하여 그의 말(또는 계명)
을 지키는 자에게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예수를 사
랑하지 않는 세상은 그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
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연결과 함께 날카
로운 대조 또는 대립이 보인다. 무엇보다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과 구원의 대상(요 1:3; 3:16)이다. 그러
나 세상은 또한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요 1:5, 10)이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예수의 사랑
을 저버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세상과 합세하기 위해 만찬
장을 떠난 뒤에, “가롯인 아닌 유다”는 예수께서 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지를 물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가롯 유다와 달리 끝
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남아 사도행전의 목
록에 이름을 남겼다.

그는 종종 “잊혀진 사도”라고 불린다. 베드로나 요한처
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아닌 데다가, 이름이 같은
가롯 유다의 악명에 가려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소중히 기억
되었으니. **만남**

찬송 부르는 법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곡조 있는 기도요, 고백이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네 번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표현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주신 말씀과 연관해 이 세상에 파송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노래로 표현한다.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미국에 있을 때, 세인트앤드류스(St. Andrew) 장로교회, 우리말로 안드레아 교회에서 5년간 음악지도자로 섬긴 적이 있다. 미국 교회의 체계와 찬양대를 연구하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스틴 러블레이스(Lovelace)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음악가이자 작곡가를 초청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음악세미나를 가졌다. 말로만 듣던 유명한 러블레이스의 세미나에 큰 기대를 갖고 참가했는데, 그가 말한 것 중 아직도 기억나는 것을 우리 교인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그 주제는 바로 ‘찬송 부르는 법’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찬송은 힘차게 불러야 한다. 조그만 소리로 웅얼거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힘찬 확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필자가 훈련병이었을 때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뜨거운 신앙고백으로 힘차게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회중 찬송 때 성가대가 교인들보다 찬송가를 더 작게 부른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프다.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것을 확신한다.

둘째, 찬송은 정확하게 부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의외로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1장인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여기서 “온 백성” 부분이다. “온 백성”이 모두 같은 음인데 대부분의 교인들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 ① 힘차게 부른다.
- ② 정확하게 부른다.
- ③ 오직 가사에 집중한다.
- ④ 1, 2절은 유니슨, 3, 4절은 화음으로
- ⑤ 내용과 배경을 알고 부른다.

이,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대원들도 단체로 틀리게 부르는 일이 많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존 루터의 유명한 성가 “아이 월 싱 위더스피릿(I will sing with the spirit)”이 있다. 이 성가의 2절은 “아이 월 싱 위더언더스탠딩(I will sing with the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함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이다. 즉, 악보를 이해하고 제대로 읽으며 정확히 찬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찬양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찬송을 부를 때 다른 상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오직 가사만을 생각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 부르면서 친구와의 약속을 생각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도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가사를 다 알고 있는 쉬운 찬송의 경우 다른 상념에 사로잡히기가 더 쉽다. 오직 가사만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고백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넷째, 찬송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1, 2절은 유니슨(unison·같은 음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3, 4절은 주로 4부 화음으로 노래한다. 그러나 4절은 주로 오르간이 화려한 반주(Free accompaniment)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화중들 모두 유니슨으로 멜로디



를 불러야 한다. 이때는 찬송가의 원래 화음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교인들이 잘 모르는 찬송이면, 끝까지 유니슨으로 불러야 한다. 필자가 미국 교회에서 지휘를 할 때도 지휘자는 예배위원으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위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항상 목사님께서 어려운 찬송가를 최소 2절까지는 꼭 유니슨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기억이 난다

다섯 번째는, 찬송의 내용과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찬송을 은혜롭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남』 9월호에 엘리자베스 프렌티스의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7월호에 박재훈 목사님 작곡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의 내용과 배경을 이미 기록한 바 있다. 대부분의 찬송이 그 작사와 작곡의 배경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찾아서 계속 2개월마다 찬송가의 내용과 배경을 연재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구분하고 있다. 시는 시편이다. 당시에 시편은 읽는 것이 아니라 노래였기 때문이다. 찬미(골 3:16)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찬양 즉 지금의 찬송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법칙을 지켜가며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은 진정한 찬미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확신한다. **만남**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11월의 상영작



굿 윌 헌팅 (Good Will Hunting, 1997)

감독 : 구스 반 산트

주연 :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벤 애플렉

상영시간 : 2시간 6분 등급 : 15세이상관람가

3일



수학, 법학, 역사학 등 모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윌' (맷 데이먼)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불우한 반항아. 절친인 '처키' (벤 애플렉)와 어울리던 '윌'의 재능을 알아본 MIT 수학과 '램보' 교수는 대학 동기인 심리학 교수 '숀' (로빈 윌리엄스)에게 그를 부탁하게 되고 거칠기만 하던 '윌'은 '숀'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상처를 위로 받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10일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Driving Miss Daisy, 1989)

감독 : 브루스 베레스포드

주연 : 제시카 탠디, 모건 프리먼

상영시간 : 1시간 39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운전기사 호크(모건 프리먼)는 까탈스런 노부인 데이지 여사(제시카 탠디)의 요구에 항상 웃음으로 대한다. 25년 동안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온 흑인인 호크와 유태인인 데이지 여사는 사회의 아웃사이더들과 같다. 처음에는 멀리하지만 문맹인 호크에게 글을 가르치는 등 두 사람은 미묘한 우정을 쌓아간다. 호크는 노령으로 일을 그만두고 데이지 여사는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 이어진다.



블라인드 사이드 (The Blind Side 2009)

감독 : 존 리 헨кок

주연 : 산드라 블록, 킴 애론, 팀 맥그로

상영시간 : 2시간 8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17일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밤, 차가운 날씨에 반팔 셔츠만을 걸친 채 체육관으로 향하던 '마이클'을 발견한 '리 앤'. 평소 불의를 참지 못하는 확고한 성격의 리 앤은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마이클이 지낼 곳이 없음을 알게 되자 집으로 데려와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낸다. 갈 곳 없는 그를 보살피는 한편 그를 의심하는 마음도 지우지 못하던 리 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이클의 순수한 심성에 빠져 든 리 앤과 그녀의 가족은 그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24일

순교보 (1986)

감독 : 임원식 주연 : 신현섭

상영시간 : 1시간 48분 등급 : 전체관람가



1990년대 초 구한말의 조선 조정이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 청년 이기풍은 당시 평양 시내를 주름잡던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다.

그러나 이기풍은 미국 장로회 파송 선교사로서 평안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사무엘 마펏 목사의 뜨거운 감화로 1907년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 등록일(9월 1일~10월 13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9월 1일	윤예라	16	000
9월 8일	노현수	14	000
9월 21일	장윤수	07	012
	김영숙	07	012
	김상초	06	047
9월 22일	박가원	14	064
	정매	05	027
	진화원	07	012
	김광영	10	033
	권선헤	02	038
	조현범	09	063
	박지성	01	000
	이온유	17	054
9월 26일	박도혜	02	068
9월 29일	신태수	16	000
	김선자	07	000
	손용식	04	032
	연지영	04	012
	용제웅	04	081
	박영지	16	000
	한아름	10	022
	김인아	06	075
	하재슬	09	054
	이호현	06	014
	조은후	05	034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9월 29일	박선우	04	040
	신유리	13	003
	김시온	14	032
10월 2일	임서윤	05	007
10월 6일	최용근	03	000
	박영자	15	019
	한두선	04	058
	안선미	03	000
	백환히	16	000
	김진언	06	017
	이동근	05	000
10월 8일	석영선	07	022
	이신원	14	000
	노휘	14	000
10월 13일	김형순	04	000
	서광욱	10	000
	박재필	09	000
	신영숙	18	000
	최우영	18	000
	김경애	07	000
	김희경	03	000
	정영훈	03	000
	추다은	14	000
	강동훈	05	000

2019 선교대회 - “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

영락교회 선교사역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적 선교비전을 고취하기 위한 2019 선교대회가 “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을 주제로 지난 10월 13일(주일)부터 18일(금)까지 열렸다. 사전행사로 열린 선교바자회와 문화선교축제를 비롯하여 대회기간 중 열린 학원선교대회와 선교전략세미나, 선교부흥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이진 행된 이번 선교대회는 성도들에게 선교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취시킨 기쁨과 감격의 자리였다.

함께 나눈 축제의 자리: 선교바자회와 문화선교축제



선교대회에 앞서 선교 목적기금을 모으기 위한 선교바자회(1~4여전도회 주관)가 지난 10월 2일(수)과 4일(금) 양일간 베다니 광장과 봉사관 앞마당에서 열려 다양한 일상 가정용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바자회 판매기금은 군인 교회인 백마누리교회 신축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11일(금)에는 선교대회 전야제 행사인 문화선교축제로 베다니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

교 이야기를 재조명한 창작뮤지컬 ‘평양 1866’ 공연이 열려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함께 배운 말씀의 자리: 선교주일 예배와 해외선교특강, 학원선교대회

13일 선교주일을 맞아 김운성 목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요한1서 4:7~10)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후 3시부터 베다니홀에서 열린 해외선교보고 특강에선 금주섭 목사(장신대 세계기독교학 특임교수)강연과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동익(러시아), 김주신(동북아Q지역), 고재영(V국), 윤장훈(싱가포르), 정연수(인도), 황관중(미얀마) 선교사 등이 세계열방을 향해 펼치고 있는 선교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베다니광장에선 영락·대광·보성학원을 소개하는 학원선교 부스, 해외 선교사와의 만남의 자리가 열렸고, 선교 소단체 사역 부스에서 찬양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찬양예배는 본당에서 2019 학원선교대회로 드렸다. 선교 자치단체장들이 태극기와 교회기를 들고 입장한 가운데 선교대회 개회식을 겸해 열린 학원선교대회 예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3개 학교법인 재학생 및 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이규민 목사(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영적 승리의 비결’(출애굽기 17:8~16) 제목의 설교에서 “나라가 혼란한 이 때 바른 영적 싸움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자”고 전했다. 특순으로 보성여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중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져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함께 나눈 부흥의 자리: 선교부흥회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열린 선교부흥회는 김상현 목사(부광감리교회)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열렸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전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김상현 목사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내 안에 품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장자 교회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여 이 나라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영락 성도들에게 전도의 바

람이 붙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한 번 한국 교회의 재부흥을 이루자는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은 매 시간마다 통성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되새기며 복음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역의 비전을 꿈꾼 자리: 선교전략세미나

16일(수) 오후 1시 30분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린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는 홍동안 목사(홍천 도심리교회), 임기도 목사(소마교회), 백영기 목사(쌍샘자연교회)가 발표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세분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후원으로 큰 힘을 얻고 있음을 감사하며 마을 주민에 의한 교회 개척 등 지역섬김 예배를 소개하면서 마을 목회의 실천 사례와 적용점, 소마생명공동체의 농사 이야기, 쌍샘자연교회의 영성·자연·문화 이야기를 발표했고 참석한 성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18일(금) 같은 시간에 열린 군선교 전략세미나는 ‘한국 군선교의 전략과 비전’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권오성 장로(예비역 육군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사무엘 목사(대령, 연합사령부교회), 이동용 목사(진백골교회), 김영석 목사(중령, 충의교회)가 발표를 맡아 군선교의 성과와 과제, 미국의 군중제도와 한국의 군선교, 대대급 교회 활성화 방안과 군선교 현장의 실태를 전하며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리더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공동취재 홍보출판부 기자단 사진 원종석 기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제104회 예장 총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4회 총회가 지난 9월 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에서 열렸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충주노회를 제외한 전국 67개 노회의 총회총대 1484명 중 1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3회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104회기를 맞이하며 교단과 한국 교회가 당면한 과제의 대안 모색과 함께 주요 현안들을 처리했다.

23일 총회 첫 순서로 열린 개회예배에서 제104회기 총회장 김태영 목사(부산 백양로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은혜와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와 생명적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시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혁신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대들은 103회기 총회장 임형석 목사(평촌교회) 집례로 성찬식을 갖고 주의 몸과 떡과 잔을 나누며 은혜와 사랑, 화평이 넘치는 총회가 되기를 다짐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104회기 총회를 섬길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총회 임원선거 조례에 따라 104회 총회장에는 전회 목사부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추대됐으며, 목사부총회장은 신정호 목사(전주노회 동신교회),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순미 장로(서울노회 영락교회)가 선출됐다. 장로부총회장에 선출된 김순미 장로는 예장 통합 교단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총회장이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 총대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현 시국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104회 총회총대 일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총대들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는 일을 멈출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사진제공 한국기독교공보

김순미 장로부총회장 취임 감사예배



104회 예장 총회에서 장로부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순미 장로 부총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7일 오후 5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서울노회장 이화영 목사(금호교회)의 인도로 드러진 이날 감사예배에선 직전 총회장 림형석 목사(평촌교회)가 ‘은혜로 받는 직분’(고전 15:9~10)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순미 장로는 “지금껏 인도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앙적으로 키워주신 영락교회와 서울노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어진 중책을 잘 감당하도록 감절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제1여전도회, 총회농촌선교센터 숙소동 건축 기공감사예배 드려

농어촌 선교를 주관하는 제1여전도회(회장 서승신 권사)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농촌선교를 위해 충부 충주시 엄정면에 위치한 총회농촌선교센터 숙소동 및 부속 관리사동을 건축하기로 하고 지난 9월 28일(토) 오전 10시 선교부와 1여전도회 임원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기공감사예배를 드렸다.



농촌선교센터가 건립되면 도·농교회 상생 선교를 위한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교육과 훈련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건축되는 숙소동과 관리사동은 각각 172.44㎡(52.16평) 59.76㎡(18.8평) 규모로 준공은 올해 말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9 선교대회를 통해 봉헌된 선교헌금은 농촌선교센터 숙소동 건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제공 제1여전도회

아이들과 함께한 80년, 영락보린원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열려



영락보린원이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지난 10월 5일(토) 영락보린원과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구 후암동 영락보린원 앞마당에서는 '한경직 목사 부조 제막식'이 진행됐다. 김운성 위임 목사, 정연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박남진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막식에서 자리를 함께한 100여 명의 후원자들은 설립자 한경직 목

사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

오후 4시에는 베다니홀에서 영락보린원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사진전시회'와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 '감사음악회'가 열렸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영락보린원이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보린원 가족들뿐만 아니라 호산나 찬양대와 LG유플러스 UCC 신우회도 함께 무대를 채웠다. 정성껏 준비한 보린원 가족들의 공연이 이어지자 참석한 600여 명의 후원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음악회에서는 장기근속 직원(7명), 후원자(2명) 및 자원봉사자(6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취재 이현지 기자 사진 이성환 안수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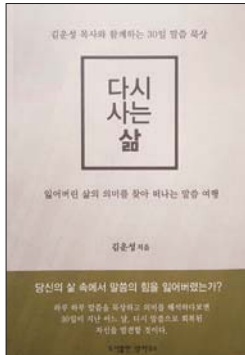
보성여중·고 개교 112주년 기념식

학교법인 보성학원(이사장 정천우 장로)은 지난 10월 10일(목) 오후 2시 보성여고 한경직기념관에서 보성여중·고 개교 112주년 기념예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예식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가르침에 놀라니'라는 설교를 통해 낳아주신 부모와 가르침을 주시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사랑의 자세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근속 교사 시상식에선 30년 근속을 한 남명활 여고 교장, 한철형 여중 교장을 비롯 모두 열 명의 장기근속 교사에게 표창과 더불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보성여중·고는 국운이 기울던 1907년 미국 북장로회 휘트모어(Whittemore) 선교사와 양전백 목사를 비롯한 선각자들이 평북 선천에서 개교한 기독교학교로 일제 치하에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두 차례 폐교한 바 있다. 해방 후 영락교회 부속건물을 임시 교사로 하여 재건했으며 한경직 목사가 재건 후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기념예식 후 가진 리셉션에서 이사장 정천우 장로는 보성학원의 이러한 역사를 언급하며 보성인들에게는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설명했다.

제공 보성학원



신간 안내 '다시 사는 삶'

- 김운성 목사와 함께하는 30일 말씀 묵상

김운성 목사의 신간 『다시 사는 삶』이 출간됐다.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말씀 여행'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생 마지막까지 계속돼야 할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아울러 전적으로 새로움을 입는 '치유'를 통해 '사명'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가 시작이라고 말한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사는 삶』은 30일간의 말씀과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말씀으로 회복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도서출판 엠마우스 펴냄/210쪽)

김응신 목사 사임, 산성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제자양육훈련부와 노원교구,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를 맡아 사역해오던 김응신 목사가 지난 10월 6일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산성교회(서초구 반포동 소재)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지난 2014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김응신 목사는 그동안 청년부를 시작으로 홍보출판부, 제자양육훈련부, 교회교육원, 종로·성북교구와 노원교구,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역사자료실 운영위원회 등을 맡아 사역해왔다.

산성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ssch.net



제1회 서울노회 남선교회 족구대회

-우리 교회 남선교회 주관으로 열려

서울노회 교회 연합과 남선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장배 족구대회가 지난 10월 9일(수)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경신고등학교에서 우리 교회 남선교회 주관(준비위원장 서상현 장로)으로 열렸다.



영락교회를 포함한 서울노회 산하 13개 교회 소속 선수들과 동반 가족 3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장 이찬우 장로(무학교회)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예선 리그전을 거쳐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 결과 승자조 우승은 문화교회, 패자조 우승은 홍익교회가 차지했으며, 우리 교회는 패자조 3등으로 경기를 마쳤다.

제공 김무섭 안수집사(제2남선교회장)

11월 토요일음악회

토요일 오후 6시, 선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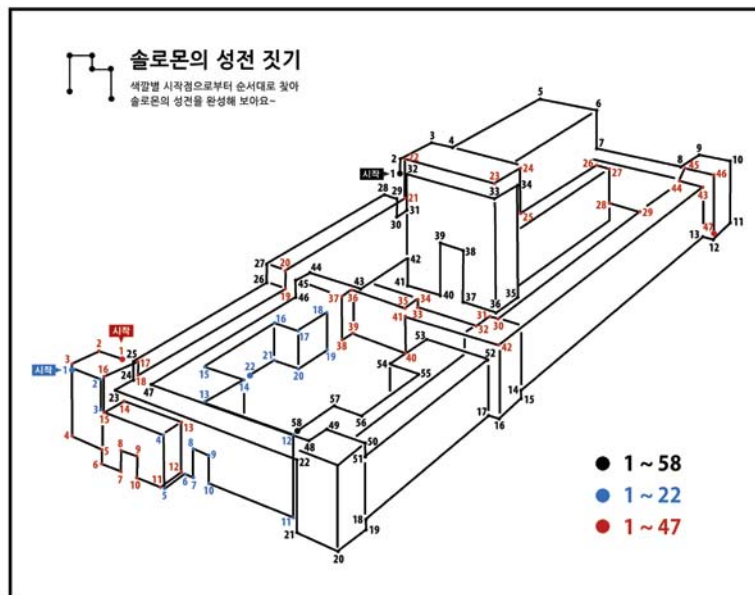
2일	글로리아 정기연주회
9일	강민정 독주회
16일	영락성가창작발표회
23일	노병이 준비한 찬양
30일	제4회 영락장로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토요일음악회는 크리스천 음악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연주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악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공 음악부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10월호 정답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틀린그림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위, 아래 그림 속에 7개의 틀린 그림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목회력

11月

1일(금)	연합관찰공부
2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3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0일(주일)	제직회
11일(월)~16일(토)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15일(금)	심방준비회
17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연합찬양예배, 새가족환영회
24일(주일)	창립기념음악회, 사회봉사주일



편집장 레터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금년 한해 하나님께서 영육간 오모조모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실때 내 삶은 흑자(黑字)였나보다.

중국 고대사를 보면, 은나라의 주왕(紂王)은 폭군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당시 비겸과 악래라는 부자(父子)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하로서 주왕을 섬기고 있었다.

비겸은 매우 발이 켜 사나이였고, 악래는 말솜씨가 좋은 능변가였다. 그들 부자는 좋은 재능을 선했던 데 쓰지 않고 사람을 모함하고 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했다. 특히 악래는 좋은 구변(口辯)을 가지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했다. 자기의 비위를 거스르면 기회를 놓칠세라 왕에게 고자질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다. 악래의 농간에 죽어간 제후들은 수없이 많았다. 따라서 충신들은 견디어낼 수 없어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다. 악래의 행동에 제후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기세가 높아 그의 악을 꺾을 자가 세상에는 없을 것으로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쳐부수고 정권을 잡음으로써 그들은 끝장이 나고 말았다. 악래는 주왕과 함께 못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당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그를 위해 변호하거나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이 차라리 시원하게 생각했다.

적자(赤字)는 경제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하직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명성은 고사하고 여러 사람들이 외면하는 소름끼치는 악인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우리는 가롯 유다의 생애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영광의 빛자리에서 함정의 구렁으로 떨어진 처참한 모습을 거울삼아, 인생의 장부 속에 붉은 글씨로 결손이 기록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나 자신’이 지녀야 할 도리인 듯싶다. 심판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 게 좋을 뻔 했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까 싶어, 합격의 영광에 오르려고 분발하는 사람이고자 한다.

편집장 이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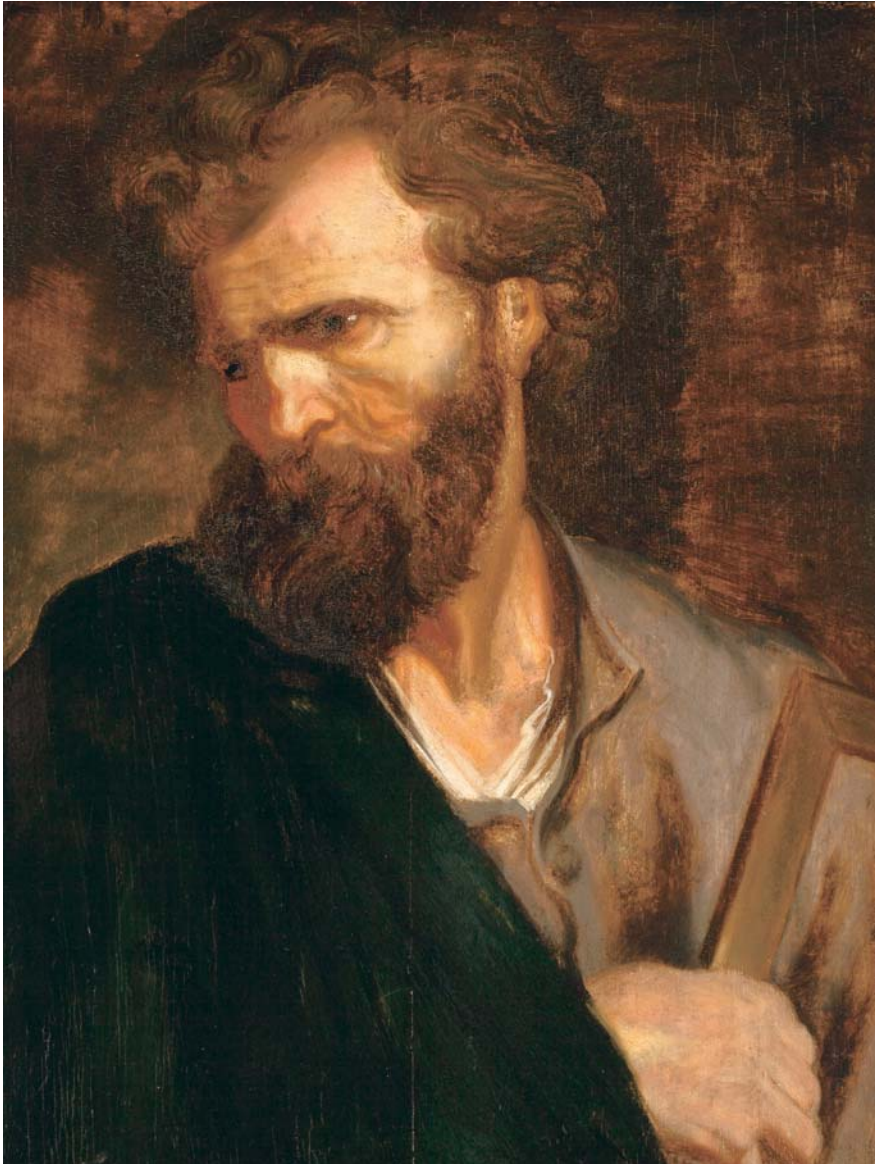
2019 선교대회



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 : 24)





안토니 반 다이크(Anthony van Dyck), 유화, 64.5×49.3cm, 1619~21

성 유다 다대오

Apostel Judas Thaddäus

이 그림에서 다대오는 도끼를 들고 있다. 이것은 그가 도끼로 순교를 당했다는 전설에 근거한 그의 상징물인데, 그의 초상화에는 종종 이 상징물이 등장한다.

이 그림을 그린 반 다이크(Anthony van Dyck)는 초상화의 대가다. 당시 북유럽 최고의 화가였던 루벤스의 제자였으며, 남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영국의 궁정화가가 되어 영국에서 생애를 마쳤다.